

# 면목역 만남의 광장 설계

김성균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 The Meeting Plaza Design around "Myeonmok" Subway Station, Seoul

Kim, Sung-Kyun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Rural System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landscape design for the meeting plaza around the "Myeonmok" subway station. The site is located at 120-1 Myeonmok 1-dong, Jungrang-gu, Seoul, and its area is approximately 2,664.7m<sup>2</sup>. The goal of the design was to make an environmentally friendly meeting and rest place which was related to the subway station.

To achieve this goal, concepts of history, tradition, sense of place, community, environmental friendliness, and function were developed. For history, stone sculpture and art tiles symbolizing the paleolithic area were introduced because the site is located near an archaeological site of paleolithic ruins. For tradition, considering that the site is a "sailing ship" form in terms of Pungsu theory, a sculpture symbolizing a sailing ship and paving patterns symbolizing waves were introduced. For a sense of place, a grass hill, a waterfall and a pond symbolizing an old meadow for horse pasture was introduced.

In addition, a multi-purpose round plaza as a meeting place for local community and subway users was proposed. A zelkova grove symbolizing a village forest was proposed for a rest and relaxation area. All areas were designed to be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barrier-free. Concepts for a defensible space were adapted for safety because the site was a crime-prone area.

*Key Words: Subway Station Plaza Design, Community Plaza, Urban Space Design, Defensible Space, Barrier-free Design*

## 1. 서론

본 설계안은 서울시 중랑구 면목1동 120-1번지의 지하철 면목역 입구 주변의 면적 약 2,664.7m<sup>2</sup>(약 807평)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안이다. 면목동 지역은 개발된지 오래된 지역으로 주변에 녹지가 거의 없으며, 교통체계가 복잡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많고, 우범지역이 많아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진 곳이다. 서울시 중랑구청에서는 이러한 곳에 지역 주민들과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휴식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

기 위한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기 위해 2005년 1월 설계현상공모를 시행하였다.

제시된 공모지침은 1) 모든 주민이 공유할 수 있는 쾌적한 다목적 광장으로 계획하고 다양한 형태의 이용 가능성을 모색, 2) 국내외의 기존 광장과 구별되는 독창적인 광장으로 계획, 3) 역사권 상권 활성화를 고려, 4) 역사, 문화자원과의 연계를 고려한 이미지 부여, 5) 지하철 출입구 인근 교통체계를 감안, 6) 야경 및 야간 활용도를 고려하여 적합한 조명계획 수립, 7) 광장의 상징성을 표현할 수 있는 조형물 도입, 8) 추정공사비

**Corresponding author:** Sung-Kyun Kim,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Rural System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51-921, Korea, Tel.: +82-2-880-4872, E-mail: sung@snu.kr

십억원 범위 내에서 설계안 제시, 9) 친환경 재료의 도입 등이었다(증량구청, 2005a).

## II. 대상지 현황

### 1. 인문환경

대상지의 동쪽에 면목역 지하철 출입구가 위치하며, 주변 토지이용은 재래시장을 비롯한 상업지와 주거지가 주를 이룬다.

주변에 비교적 교통량이 많으면 차량 정체 및 주차가 심각한 수준이다.

면목(面牧)은 면의 목장이라는 뜻으로 과거 주변에 목장 터였다고 한다(http://jungnang.seoul.kr). 대상지 부근에서 서울에서 유일한 구석기 유물이 출토되었으며(황용훈, 1970), 주변의 지형은 풍수적으로 명당인 행주형(行舟形)으로 구전되어 온다.

대상지 주변의 이용자들의 선호도 조사를 위해 설문분석을 하였으며, 설문은 2005년 1월 주중과 주말에 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여러 계층(남 55명, 여 55명)에 대해 시행하였다. 설문 결과 면목동의 현재의 주 이미지는 재래시장, 좁은 도로, 매연, 홍수 등을 들고 있으며, 매력요소로는 먹거리, 사람들 등이며, 불만족 요소로는 환경오염, 노점상 난립, 휴식공간 부족, 녹음수 부족, 우범지대 등을 들었다. 원하는 공간이미지로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한 이미지를 들었으며, 희망 조정요소로는 수경시설, 녹음수 증대, 야간조명, 환경조형물, 공연시설 등을 들었다.

경관은 주변 상업지역의 복잡한 간판이 특색을 이루고 있으며, 전신주 및 전선줄이 경관을 더욱 복잡하게 한다. 대상지 남서쪽 가로로 종점에 조망되는 산봉우리가 비교적 우수한 경관이라고 할 수 있다.

### 2. 자연환경

대상지는 언덕의 중턱에 위치하여 남쪽으로 고지대로 이어지며, 북쪽은 낮아져 가까운 곳에 상습 범람지역이 위치한다. 대상지 자체는 경사가 거의 없는 평탄지이다.

건물의 철거된 지역의 토양이어서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대상지 내부에는 식물이 전혀 없으며 주변에는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고, 증량구의 구목은 느티나무이다.

## III. 설계목표 및 구상

현상공모에서 주어진 설계의 목표는 복잡한 도심 속에서 지역의 주요 대중교통인 지하철역과 연계된 푸르름이 있는 자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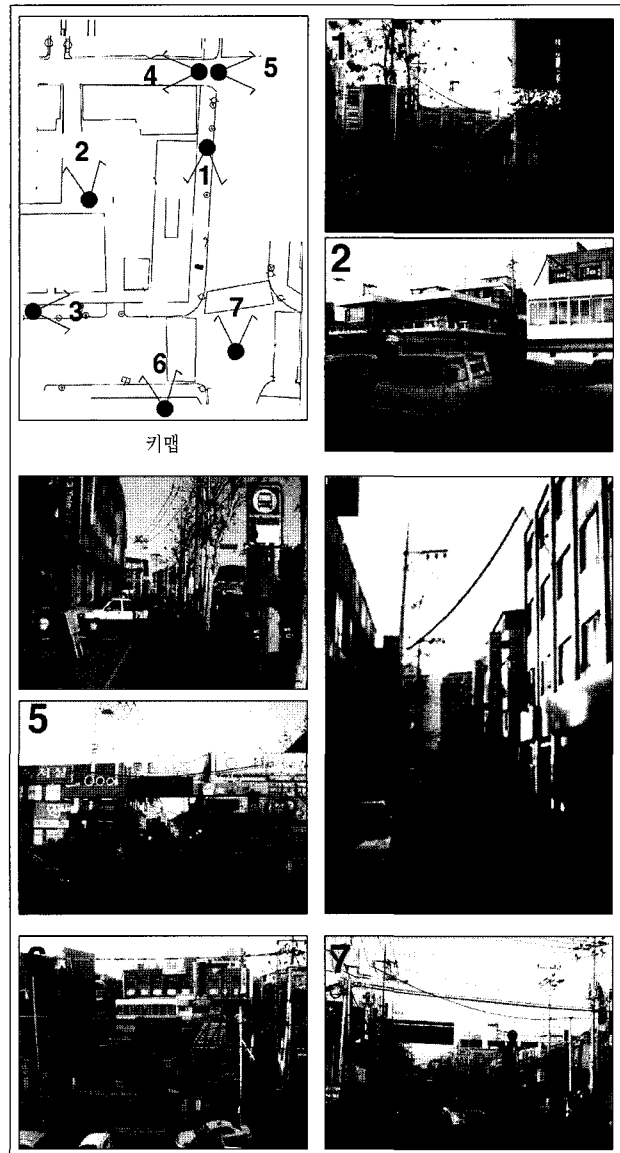


그림 1. 대상지 현황

친화적 휴식 및 만남의 공간을 조성이었다. 기본조건과 더불어 면목역은 면목동을 상징하는 역이므로 면목동의 역사를 담은 공간의 조성을 추가적 목표로 하였다. 설계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체적 공간구성은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구석기 유적이 발굴된 면목동의 장소적 의미를 부각시켜 면목동 일대의 역사를 구석기시대로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축을 공간의 골격으로 하였다(그림 2 참조). 이러한 시간축과 중첩하여 지역의 풍수의 형국인 행주형을 형상화한 배와 타륜을 서로 맞물리게 하고(그림 3 참조), 타륜을 상징하는 원형마당이 커뮤니티 공간이 되도록 하였다(그림 5 참조).

이 원형마당의 주변에 면목동 일대의 역사적 유물인 마을숲, 말, 목장, 개울 등을 형상화하여 과거 대상지의 장소성을 상징토록 하였으며, 이용자들이 흥미요소가 되도록 하였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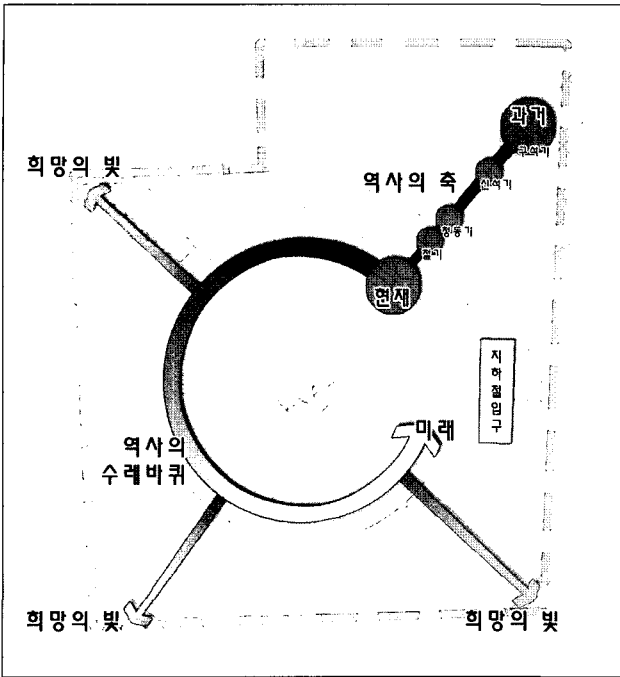


그림 2. 역사의 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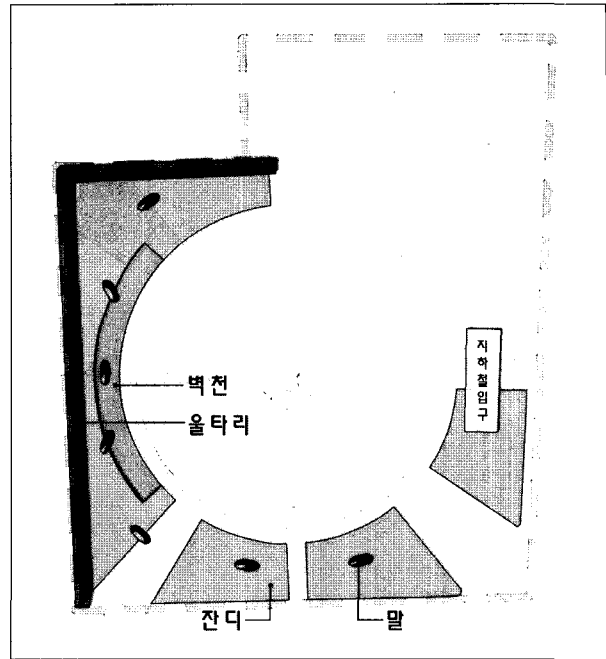


그림 4. 장소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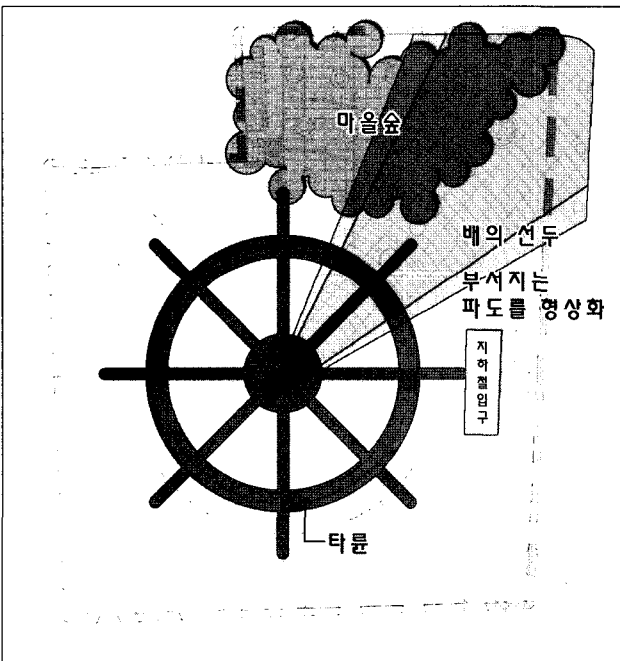


그림 3. 대상지 풍수를 상징하는 공간의 축

참조). 전체 공간은 미기후, 우수시스템 등의 측면에서 친환경적인 공간이 되도록 설계하였으며, 장애자에 대한 배려 등 기능적으로 원활한 공간설계가 되도록 하였다(그림 5 참조).

중첩된 공간을 역사성, 전통성, 장소성, 커뮤니티, 친환경성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설계방향과 공간구상 및 설계요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역사성

#### 1) 설계방향

대상지 주변은 서울에서 유일한 구석기 유물이 발굴된 지역으로 서울에서 가장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던 곳으로 서울의 뿌리에 해당하는 곳이다. 본 설계에서는 구석기시대부터 살아온 면목동 일대의 역사를 상징화하고 주민들의 자랑거리로 삼는다.

#### 2) 공간구상 및 설계요소

과거와 현재에 이르는 역사의 축을 주동선에 따라 설정하고 현재로부터 미래를 향한 염원을 담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상징하는 원형의 띠를 디자인 모티브로 설정하였다. 역사의 축에는 구석기-신석기-청동기-철기-현재-미래를 상징하는 조형물 및 도판을 두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상징하는 원형포장과 미래의 이미지를 담은 도판을 도입하였다(그림 2 참조).

### 2. 전통성

#### 1) 설계방향

구전되어온 풍수적 명당 터인 행주형(行舟形)의 면목동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전통마을의 공유(커뮤니티)공간인 마을숲의 기능을 갖는 공간을 도입한다.

#### 2) 공간구상 및 설계요소

미래의 희망을 향해 달리는 행주형의 배를 상징하는 뱃머리 조형물을 과거로부터 미래로 향하도록 배치하였으며, 중앙에 미

래를 상징하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배의 타륜을 디자인 모티브로 도입하여 배와 역사의 이미지가 서로 맞물리도록 하였다. 주변에는 느티나무를 군식하여 과거 대상지 주변에 위치하였던 마을숲을 상징화하고 휴식과 만남의 공간으로 하였다(그림 3 참조).

### 3. 장소성

#### 1) 설계방향

과거 말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달리던 아름다운 면목(면의 목장)의 장소적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 2) 공간구상 및 설계요소

과거 목장터의 초원을 상징하는 잔디언덕과 이곳에서 풀을 뜯고 물을 마시는 말을 디자인 모티브로 하여 수경시설(벽천과 연못)과 실루엣 첩판 조형말과 그 배경으로 목장의 울타리를 상징하는 트릴리스를 설치하고 넝쿨을 올려 과거 면목동 목장의 장소성을 살렸다(그림 4 참조).

### 4. 커뮤니티

#### 1) 설계방향

남녀노소 모두가 즐겁게 만나 쉴 수 있고 주민들의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며,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 2) 공간구상 및 설계요소

다양한 커뮤니티 이벤트를 수용할 수 있는 원형의 야외공연장과 지하철 입구 높이차를 이용한 만남의 계단을 도입하고 주변에는 경사로를 설치하며, 느티나무숲의 나무 주위에 원형의 자를 조성한다(그림 5 참조).

### 5. 친환경성

#### 1) 설계방향

지하에 우수를 침투시키고, 순환되게 하여 수환경시스템을 보완하며, 도시미기후를 활용한 쾌적한 공간을 조성한다.

#### 2) 공간구상 및 설계요소

지하철 폐지하수를 이용한 수경시설을 도입하며, 투수성 포장 재료를 도입하였다. 쾌적한 미기후 조성을 위해 겨울 북서풍 차단용 식재와 여름 남동풍 바람길을 유도하는 입구를 조성하였다. 여름에 시원한 녹지(저온)에서 더운 광장(고온)으로 온도차에 의한 바람의 이동을 유도하였다(그림 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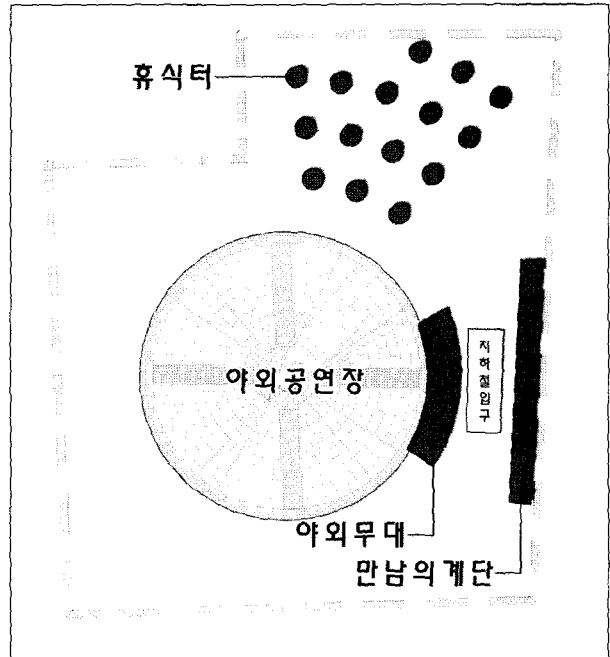


그림 5. 커뮤니티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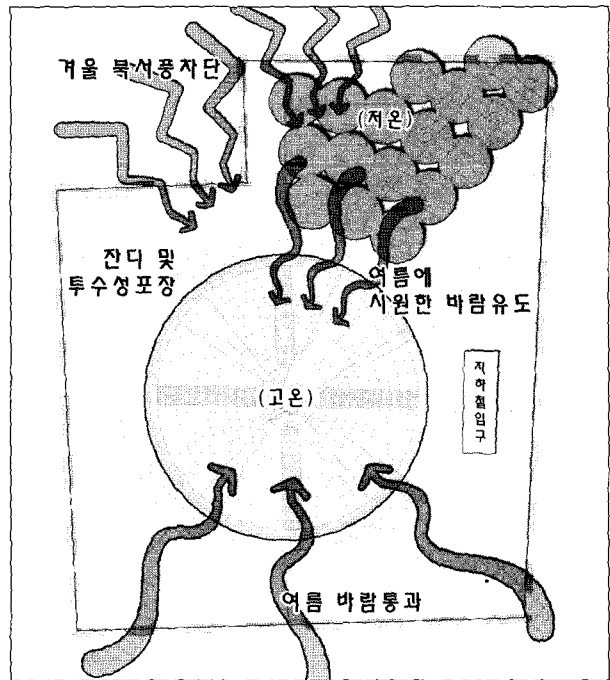


그림 6. 친환경성

### 6. 기능성

#### 1) 설계방향

지하철입구, 정류장, 시장 등 주변 토지이용 및 시설과 연계 시키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개념(Defensible Space)(Newman, 1972)을 도입하여 쾌적한 공간을 조성한다.

2) 공간구상 및 설계요소

지하철 입구와 시장과 연계한 동선을 설정하고, 버스정류장 주변의 앉는 공간을 제공하며, 환승 자전거주차장을 조성하였다. 범죄예방을 위해 개방형 공간으로 조성하며, 밤에는 밝은 조명을 도입하고 상향으로 빛을 억제하여 광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였다(그림 7 참조).

**IV. 기본계획**

1. 동선계획

대상지 남서쪽에서 지하철 입구와 재래시장 쪽으로 주동선 설정을 설정하고, 대상지 중심에서 남북, 남동쪽으로 보조동선을 설정하였다. 대상지 전 지역을 장애인이 휠체어로 접근하도록 하였다(그림 8, 9, 10 참조).

2. 식재계획

계절별, 기능별, 주제별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며 전체적으로 자생수종을 식재하였다. 마을숲에는 중량구의 구목인 느티나무를 식재하며, 목장 상징공간에는 잔디, 소나무, 처진벚나무를, 버스정류장, 만남의 계단 부근에는 이팝나무를, 남쪽 진입부분에는 왕벚나무를, 모서리부분에는 산철쭉을 식재하여 계절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 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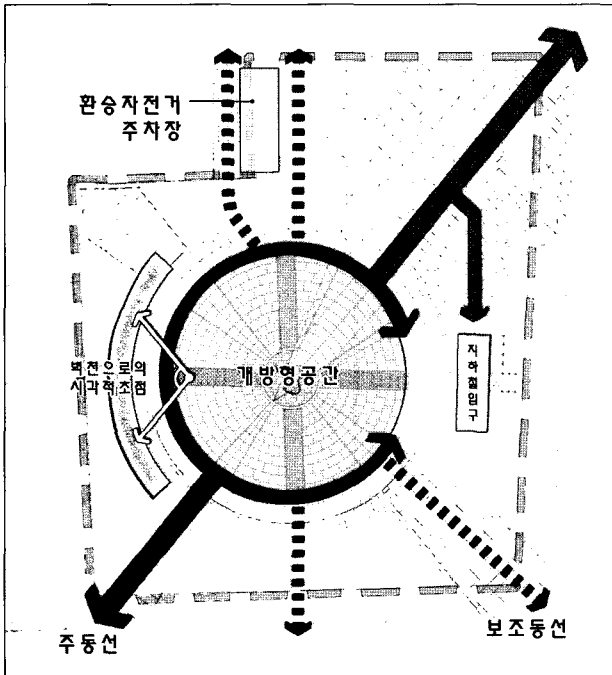


그림 7. 기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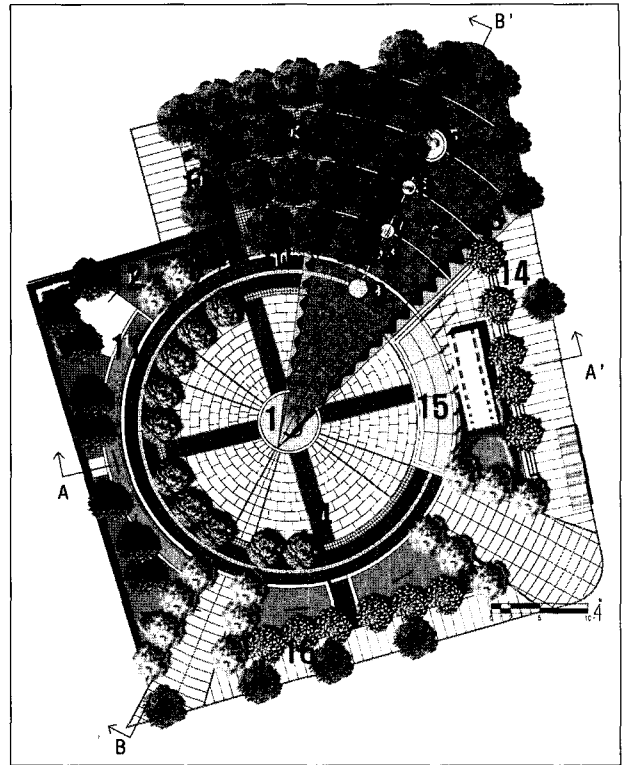


그림 8. 기본계획도

- 범례: 1: 행주형 뱃머리조형물, 2: 행주상징 패턴, 3: 파도상징 패턴, 4: 타륜상징 패턴, 5: 구석기상징 조형물, 6: 산석기상징도판, 7: 청동기상징도판, 8: 철기상징도판, 9: 면목동지도, 10: 역사의 수레바퀴, 11: 벽천, 12: 말조형물, 13: 마을숲, 14: 만남의 계단, 15: 무대, 16: 버스정류장, 17: 자전거주차장

3. 시설물 및 포장계획

1) 포장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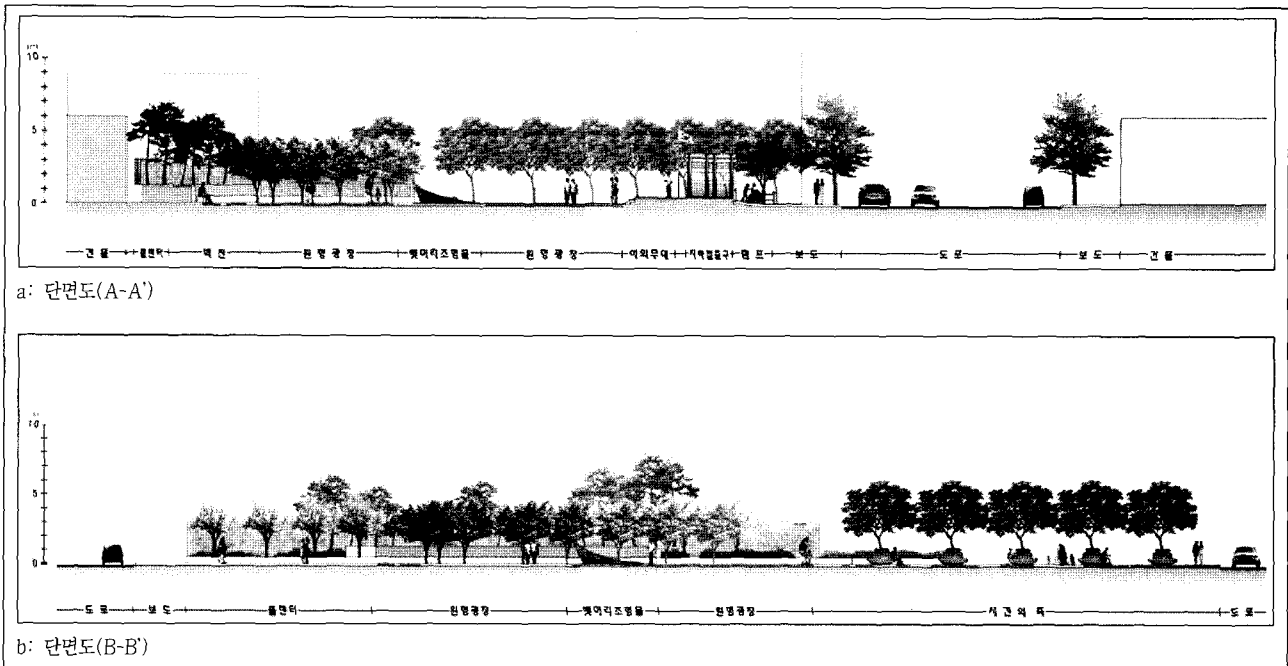
포장은 주변 지역의 지질인 화강석을 주로 하고 강조를 위해 벽돌 및 유색 석재를 도입하였다. 행주형 배의 상징포장은 흑색의 마천석, 물결상징 포장은 철판석, 원형 광장 내부는 화강석, 타륜 상징포장은 적갈색 벽돌, 마을숲 공간은 화강석 사교석 포장을 도입하였다.

2) 상징조형물

(1) 말 실루엣: 과거 면목동 말 목장을 상징하기 위해 말의 다양한 모습의 실루엣을 철판으로 제작 설치하였다.

(2) 석기조형물: 대상지의 상징물인 타제석기를 입체조형물로 제작하고, 기타 시대는 그 시대의 대표적 도구를 도안화한 도판을 도입하였다.

(3) 역사의 수레바퀴 : 광장 조성연도인 2005년부터 100년 후 까지 년도와 십이간지를 기록한 바닥포장을 도입하여 미래 이용자와 시간적 연결을 위한 고리로 삼았다.



a: 단면도(A-A')

b: 단면도(B-B')

그림 9. 대상지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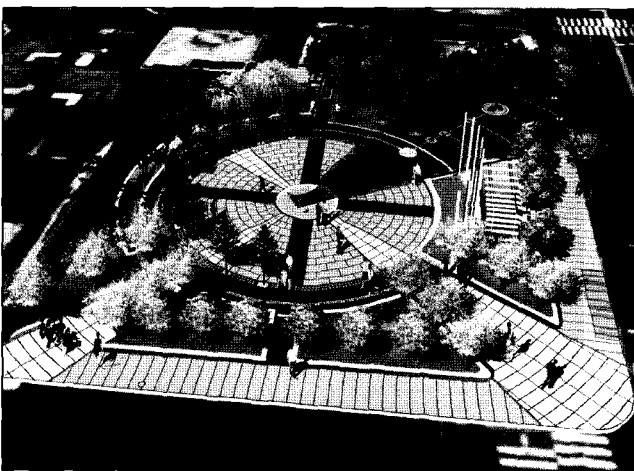


그림 10. 면목역 만남의 광장 조성 설계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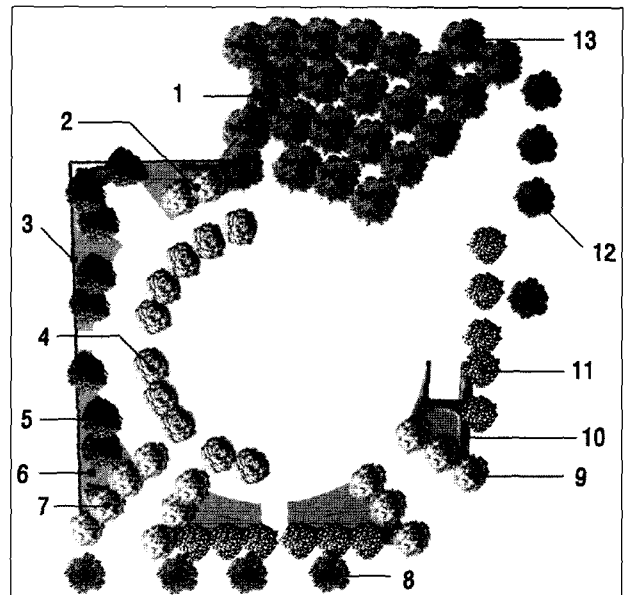


그림 11. 식재계획

- 범례: 1. 단풍나무      2. 수양벚나무      3. 트레일리스(차폐식재)  
 4. 살구나무      5. 소나무      6. 잔디  
 7. 왕벚나무 열식      8. 플라타너스 (기존가로수)  
 9. 왕벚나무 열식  
 10. 산철쭉      11. 이팝나무      12. 플라타너스(기존가로수)  
 13. 느티나무(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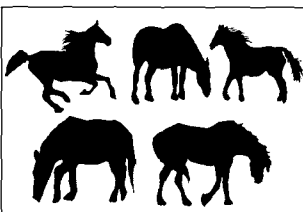


그림 12. 말 실루엣 이미지



그림 13. 역사수레바퀴 도판

#### 4. 조명계획

조명은 기능조명과 연출조명으로 나누어 접근하였으며, 기

능조명은 야간에 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밝게 조명하고, 연출조명은 공간의 주제에 따라 시설물 및 나무를 조명하여 야간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 V. 주요 공간설계

### 1. 행주(行舟) 뱃머리 조형물

면목동의 풍수형국인 행주형(行舟形)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선체는 평면, 뱃머리 부분은 3차원으로 형상화하였다. 뱃머리 주위에는 물과 둥근 자갈로 구성된 원형 수반을 배치하고, 둥근 자갈은 구석기 조형물과 대조적으로 표면이 매끈한 자갈로 하여 현대와 미래의 이미지를 상징화하였다. 원형수반 주변에는 안개분수를 설치하여 신비감을 조성하였다(그림 14 참조).

### 2. 벽천 및 목장 상징공간

과거 면목동에 있었던 목장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광장의 시각적 초점이 되도록 하였다. 전면에는 벽을 따라 조용히 흐르는 벽천을 조성하고 뒷면에는 잔디와 그 위에서 달리고, 물을 마시고, 풀을 뜯는 말의 모습을 실루엣 형태로 만들어 설치하고, 재료는 녹스는 강철로 하여 자연적으로 붉은 색의 녹이 들도록 하였다(그림 12 참조).

주변 주거지의 담장을 차폐하기 위해 목장의 울타리를 상징하는 목재 트랜리스를 설치하며, 벽천 앞에는 둥근 형태로 살구나무와 그 아래 벤치를 배치하였다. 벽천 뒤에는 낙엽이 물에 빠지지 않도록 활엽수보다는 침엽수인 소나무를 식재하였다(그림 15 참조).

### 3. 역사의 축과 수레바퀴

서울에서 유일하게 구석기 유물이 발굴되어 서울의 뿌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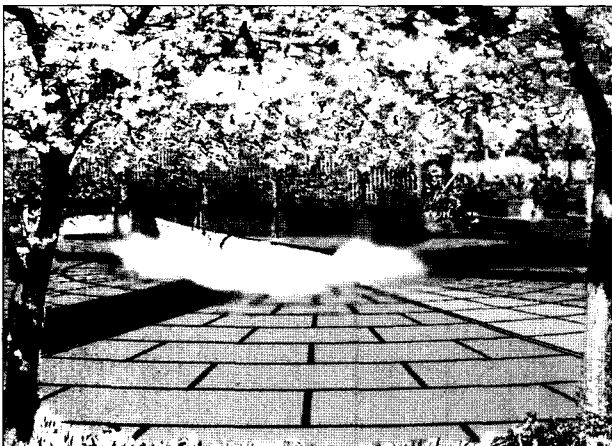


그림 14. 행주형 뱃머리 조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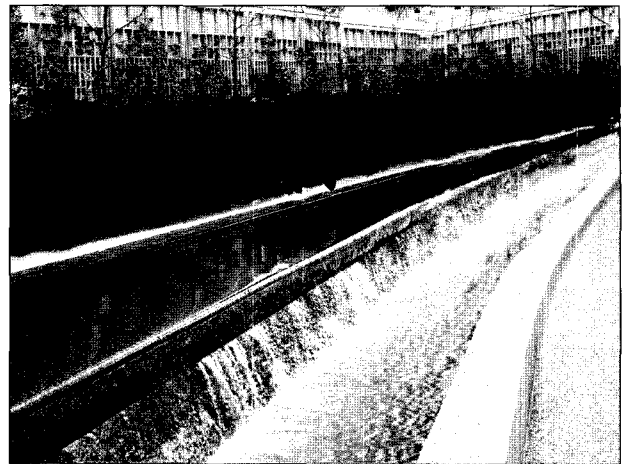


그림 15. 목장 상징공간



그림 16. 구석기 상징조형물

고 할 수 있는 면목동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구석기-신석기-청동기-철기-현대의 순으로 원형의 조형물 및 바닥포장을 설치하였다.

- 1) 구석기 원형에는 타제석기를 입체적으로 조형화하여 설치하고, 주변에는 깨진 돌을 바닥에 깔았다.
- 2) 신석기, 청동기, 철기의 원형에는 그 시대 대표적 도구를 돌, 청동, 철로 조형화하여 바닥에 부착하였다.
- 3) 현대의 원형에는 현대의 재료로 면목동 지도를 제작하여 부착하였다.
- 4) 현재로부터 타문을 상징하는 원형포장 패턴을 따라 사각형으로 구성된 원형 띠를 만들어 미래 역사의 수레바퀴를 상징하고, 각 석판에는 현재의 2005년부터 100년간 년도와 간지(干支)를 새겨 넣었다(그림 13 참조).

### 4. 마을숲(느티나무숲)

대상지 주변에 위치하였고 전통마을의 공유공간인 마을숲의



그림 17. 느티나무 휴식공간

개념으로 만남과 휴식공간이다. 수종은 전통 마을숲의 주요 수종이면서 중량구의 구나무인 느티나무를 식재하고, 느티나무 아래에는 휴식을 위한 원형의 벤치를 설치하였다(그림 17 참조). 바닥포장은 구석기의 이미지와 연계시켜 거친 사교석을 포장하였다.

### 5. 만남의 계단

전철입구 구조물의 측면 높이차를 이용하여 조성한 계단으로 만남을 위한 공간이다. 계단 사이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식재 플랜터를 조성하여 여름에 그늘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하고, 식재는 초여름 흰 꽃을 볼 수 있는 이팝나무를 식재하였다(그림 18 참조).

## VI. 결론

면목동 지역은 도시가 형성된 지 오래된 지역으로 주변에 녹지가 거의 없으며, 교통체계가 복잡하고, 주변에 우범지역이 많



그림 18. 만남의 계단

아 매우 열악한 생활환경을 가진 곳이다. 이러한 곳에 전철역 주변으로 부지를 확보하여 주민들과 지하철 이용자를 위한 공공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대상지는 작은 공간이지만 열악한 주변 환경에서 외부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매우 높았으며 이를 위해 다목적이며 부지와 관련된 다양한 이미지를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다양한 이미지는 각기 다른 층(layer)으로 구분하여 다목적이며 부지와 관련된 다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특히 구석기시대의 유물이 발견된 서울의 터줏 마을인 역사성과 장소성을 살려 면목동이 서울의 상징적 중심이 되도록 하고 이로서 주민들이 긍지를 갖도록 시도한 점이 설계적 의의라고 할 수 있다.

### 인용문헌

1. 중앙구청(2005) "면목역 만남의 광장 조성 설계" 현상공모 지침서.
2. 황용훈(1970) 서울면목동유적발견 구석기의 형태학적 조사. 경희사학 2: 15-28.
3. Newman, Oscar(1972) Defensible Space: Crime Prevention Through Urban Design. New York: Macmillan.

원 고 접 수: 2005년 4월 28일  
 최종 수정 본 접수: 2007년 4월 20일  
 4 인 의 명 심 사 필